

학동 심장 집단 검진의 필요성

- 홍창의 박사 발표문 중에서



지난 3월 24일 본회에서 실시된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홍창의 박사는
학생 심장병의 실태를 발표하고
집단 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 글은 그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1. 심장병을 가진 아동의 발견

홍창의 등이 서울시내 학동 약 2만 명에 대한 심장집단 검진을 시행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선천성 심질환	3.34%
후천성 심질환	0.03%
기 타	0.05%
심전도 이상	0.88%
	1.3%

이들 중에는 자기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동도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2. 심장병증증도(重症度)의 결정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병이 어떤 병이며 어느정도 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 학생도, 그 병이

어떤 병이며,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가 많다. 따라서 심질환이 있는 경우 그 병이 어느정도 중한 것인지를 정해 줄 필요가 있다.

3. 적절환 관리, 지도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질환을 그대로 두고있는 경우도있고 또 어떤학생은 가벼워서 운동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는 으레히 쉬면서 구경만 하고 자기자신이 정신적으로 병신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미 심장 수술을 받은 아동에 있어서도 적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4. 돌연사의 예방

우리는 가끔 신문 지상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본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고 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것을 돌연사(突然死)라고 한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이같은 돌연사를 하는 학생이 매년 120~140명이나 되는데 그중 80%는 심장 때문에 일어나는 돌연사라고 한다.

이러한 돌연사를 일으키기 쉬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학동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의사항을 학생에게 주지시켜 무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돌연사를 일으켰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상이나오므로 모든 예가 그대로 보고되어 정확히 통계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동아의 돌연사가 사회적 여론이 되어 1973년 학교 보건법에 의하여 학동들의 심장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